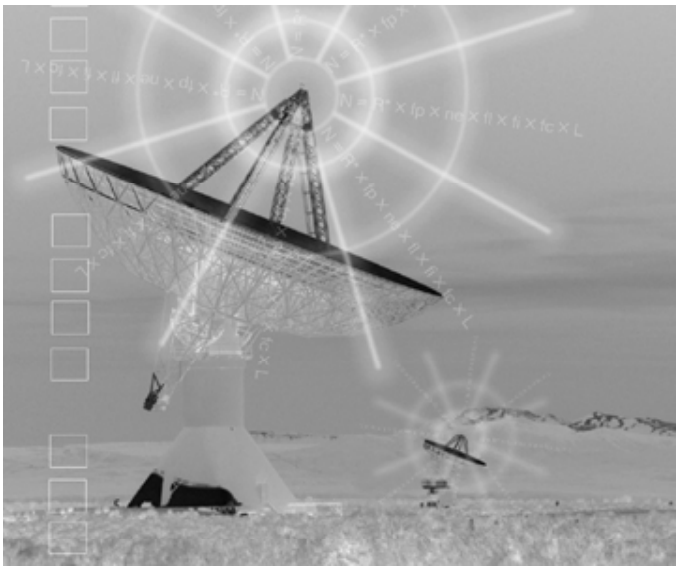
전자 스모그, 위험의 근거를 밝히다 (3부)

| **발터 라우프스** | **안성윤**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교류 전자기장이 인체의 조절 메커니즘을 교란하여 건강에 위협을 준다고 말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3부)

인간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것을 대부분 열로 전환시키는 에너지 전환계이다. 물리학에서는 이를 '소산(dissipative)'이라고 한다. 물리적 관점에서 인간, 동물, 식물은 동적 평형상태(dynamic equilibrium)에 있는 열린계이자 소산계(혹은 흩어지기계)로서,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물질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생존한다. 긍정적인 정보는 수신계를 안정화시키고, 부정적인 정보는 수신계에 불안정을 초래, 즉 수신계를 병들게 한다. 하루하루 매순간 인체는 점막, 공기, 피부를 통해서 무수한 외부요소와 접속하며, 이런 방식으로 다른 생명체 또는 무기체/비활성계에서 방출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적으로 얻는다. 일관성(Coherence), 즉 (실질적인 정보를 보내는) 발신계와 정보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수신계 사이의 조화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조화를 이룰수록 그들 사이의 교류과정에서 일관성이 높아진다; 조화를 덜 이룰수록 그들 사이의 과정은 덜 통일되고 실질적 정보를 양립할 수 없게 만든다.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정보 혹은 주파수 패턴(아인슈타인, 막스 플랑크 참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 환경과 공명한다. 발신자의 주파수(즉 실질적인 정보)와 수신자(즉 바이오시스템/인간)의 주파수가 서로 잘 맞으면, 그렇게 수신된 에너지는 유익하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이어서 건강에 안정화 효과를 가져다준다. 반대로 생명체가 부정적 에너지를 다량으로 흡수했다면, 다시 말해서 핵의 성질이 손상되었다면 머지 아 건강이 나빠질 것이다.

흥미롭게도 1924년 프랑스 물리학자 드 브로이(Count de Broglie)는 모든 물체가 특정한 정보를 우주로 방출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것으로 그는 당시 물리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물리학자 클린턴 조셉 데이비슨(Clinton Joseph Davisson)은 실험을 통해 드 브로이의 '물질파(Material Wave)'를 확인했다. 두 사람은 1937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많은 형이상학적 현상이 부커르트 하임(Burkhard Heim)과 그의 통일양자장 이론 덕분에 과학적 재탄생을 경험하고 있다(2차원에 머물고 있는 다른 많은 과학자들로서는 화날법한 일이겠지만). 하임의 논제가 미치는 영향은 물리학과 그것의 단호하고 확립된 방식을 넘어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양자역학은 무척이나 근본적이어서 유기체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에서 모두 영향을 미친다. 양자성질은 특정 조건 하에서는 미시적인 수준에서도 유효하며, 거시적이고 생물학적 수준에서도 명백하다(Dürr Von Weizäcker). 의학에서도 양자역학은 필수가 되었다. 살아있는 생물은 극한적인 형태의 양자개체라고 할 수 있다(Pasqual Jordan). 양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우연한 과정은 의식이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필수전제 조건이며, 따라서 모든 순수정신요법 및 에너지의학의 몇몇 요법 체계에 설명의 틀이 될 것이다.

진공에너지, 영점에너지, 아양자장(sub-quantum field) 등은 모든 것을 통일하는 공간에너지에 대한 기존의 생명론적 관점을 새롭게 정의한 개념이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라도, 잠재적 에너지와 내적 구조 동역학을 가진 에너지 시스템을 찾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진동하는 가상입자로 존재하는 기체 연속물을 만들어낸다. 기체 연속물은 정보장으로 작용하면서 물리적 실체를 갖춘 모든 것을 벡터에너지 혹은 물질로 결정한다(비쇼프). 이 스칼라장은 의식적인

마음과 관련 있다. 실재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의식이 진공상태[1]에 의해 자극받아 동력화된 부분으로 간주된다. 카시미르 효과(Casimir effect)와 아로노프-봄 효과(Aharonov-Bohm)의 발견 이후, 테슬라에 의해 이미 서술된 스칼라파는 실재로 받아들여져야 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동력 발전에 대한 가능성의 압도적 잠재성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의학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그저 암시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진공에너지 기술은 각각의 의료 목적에 맞게끔 조직된 신호를 설계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기 로 진행된다. 뇌 연구 분야의 새로운 이론은 아양자장(sub-quantum field)을 바탕으로 한다: 노벨상 수상자 존 에클스 경(Sir John Eccles)은 이미 '양자신경역학'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아마 생체공명, 동종요법, 전자공학 등과 같이 효과가 증명된 의학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지도 모른다. 이 치료요법이 대체의학에서는 성공적으로 적용된 반면, 제도권 의학이나 주류 과학은 여전히 강력히 그것에 반대한다.

이 논문 처음에, 나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많은 새로운 스트레스원에 직면한다고 언급했다. 전자스모그(esmog)라고 하는, 기술

1 전통 물리학에서 진공이라는 용어는 '빈 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자공학에서는 에너지가 가장 낮고 안정성이 가장 높은 상태, 즉 한 시스템의 '기본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모든 물질 시스템을 장(field) 시스템으로 보는 양자장 이론은 장(field)과 입자를, 진공장이 각각 달리 활성화된 상태라고 간주한다. 모든 종류의 힘 또는 입자는 고유한 진공 상태를 갖고 있다.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전자기장에도 잔류 에너지가 있다. 이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이다. 이 잔류 에너지는 '영점 에너지'라고도 표현하며, '영점 파동'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물리적 힘이나 물리적 입자의 진공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다. 달리 말해서 모든 힘의 장과 물질장이 모두 평균되어서 강도가 0이 되는 '빈 공간'은, 사실 '유령입자'의 끊임없는 활동 내지 '유령 장'으로 채워져 있으며, 극도로 짧은 시간 동안만 나타났다가 곧바로 없어진다.

발전으로 생겨나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전자기 스트레스는 오히려 특별한 종류의 스트레스원이다. 전자스모그라는 포괄적 용어로 요약된 무수한 스트레스원은 세포의 생리작용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전신의 조절 메커니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물론 업계는 이 사실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 권력은 차별을 간구하고 또 대중 속으로 과감히 그들의 견해를 가지고 나가려는 이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길 주저하지 않는다(베커 교수 참고). 하지만 외부 전자기장이 생체 내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EKG와 EEG 측정결과에서 증명하듯 세포 커뮤니케이션(cell communication)은 몇 천분의 일 볼트 심지어 몇 백만분의 일 볼트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신체의 전기화학적 변위전류는 15㎂이다. 예를 들어 심장의 클록 주파수를 컨트롤하는 인공심박조율기는 8㎂, 즉 0.000008A에 불과하다. 건강상의 위해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 유기체가 노출된 인위적인 교류 전자기장은

a) 인체 전위보다 몇 배나 강하고

b) 인위적으로 발생된 교류 전자기장의 주파수가 인체의 조절 메커니즘을 교란하기 때문이다.

전자스모그에 의해 발생된 생물학적 건강 위해 효과는 아래 때문이다.

- 기술적 신호의 전력속 밀도[2] 또는 장(field)의 세기
- 장(field)의 종류(자기장, 전기장 및 변조(modulation), 맥동(pulsation), 주파수)

2 전력속 밀도(power flux density) : 전파가 전파될 때 전파 방향에 직각인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자파의 에너지량

- 전자기장에 노출된 사람의 개별적인 민감도
- 유도 기간(induction period)

그런 결과 외에도 나는 몇 년 동안의 광범위한 연구기간 동안, 전자스모그가 심각하게 생체(인간, 동물)의 건강을 손상시킨다는 나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여러 국제적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연구를 무시하듯, 공인된 여러 과학 연구물에서는 뻔뻔스럽게도 전자파가 무해하다고 계속 주장한다. 그런 문헌 중 하나가 바로, SSK(독일 정부 산하 가칭 '전자파보호위원회 (Strahlenschutz-kommission)')가 '전자기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준 및 예방책'이라는 제목으로 2001년 6월 13일에 발표한 56쪽짜리 권고서인데, 놀랍게도 전자파가 건강상의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를 두고 폰 글라디스(Von Gladiss) 의학박사는 다음과 같이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전자파보호위원회의 권고서는 한마디로, 불편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전문가들도 기꺼이 시야와 사고를 제한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자스모그에 관한 진실보다는 이윤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오케이'라는 말이 인식된 이래로 전 세계는 잔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다음을 고려해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전자스모그는 분명히 건강상의 위험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전자기장은 생체에 열전도성(thermic) 영향과 비열전도성(athermic) 영향을 미친다. 아직까지 비열전도성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다(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과학이 기반으로 하는 두 가지 가정은 기계적 시스템에는 훌륭하게 적용될지 모르나, 생물학적

시스템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적용 불가능하다. 그 두 가지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기장의 강도가 낮으면 체내에 미치는 영향도 약하다는 결론은 전자파흡수율(SAR)을 고려할 때 옳지 않다.
2. 또한 과학은 도체와 관련 있는 표면 효과[3]가 생체에도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표면 효과와 관련해서, 에너지가 도체의 중심부까지 투과하는 정도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달리 말해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생체에 투과되는 에너지(전자파흡수율) 또한 적어진다. 그래서 도체의 표면 근처의 전류 밀도[4]는 도체 핵심의 전류 밀도보다 더 크다. 즉, 전류는 도체의 '표면'에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인체 조직도 전도성을 띠므로 도체와 관련된 이 같은 현상을 인체에도 적용해버리는데 이는 잘못이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유기체의 경우 생체의 표면이 반사적으로(반사작용에 의해 생긴) 생체의 내부 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론 약한 표면 자극으로 내부 조직기관에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생체의학(biological medicine)에서는 이 사실이 조직적으로 적용된다. 침술과 발반사요법에서는 미세한 표면 자극으로 체내 깊숙이 침투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또 이들 효과는 압접이 분산되는 한, 서로 섞인다고 여겨진다. 맥동 신호(pulsed signal)의 전파 강도가 특정기간의 시간에 걸쳐 산술적으로 평균된 것이라면, 그것은 통계일

3 표면 효과(Skin Effect) : 신호의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도체 표면으로 전류가 집중되는 현상. 한편, 전류가 흐르는 깊이는 표면 깊이(Skin Depth)라 한다.

4 전류 밀도(current density) : 단위면적당 전류의 크기. 균일 도체에 직류를 흘린 경우에는 전류 밀도가 도체 단면의 어느 곳에서도 같지만, 교류를 흘렸을 경우 표면 효과에 의해서 도체의 표면에 가까울수록 전류 밀도가 커지고, 또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 경향이 더욱 현저해진다.

뿐이다. 이것은 파고값, 장기노출, 자극주기리듬이 미치는 구체적인 생물학적 효과와는 전혀 관계없다. 이 잘못된 확신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구체적인 충격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특정시간 내의 평균 효과만 고려한다. 그러나 이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다음의 예에서도 잘 알 수 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발가락을 망치로 반복해서 때린다고 하자. 주류 과학계의 관점에 따르면, 그 충격은 완벽하게 참을 수 있다. 발을 쉼 없이 계속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타격과 타격 사이에 짧은 회복시간이 있기 때문에, 타격의 세기가 노출된 시간에 비 하여 평균되기 때문이다.

저명한 과학자들은 더 이상 생물학적 현실을 무시하지 못한다. 이 점은, 주류 과학자들이 '건강상의 위해'와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긴 하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건강상의 위해와는 연관 지을 수 없는 것'을 반드시 구별하는 것에서도 방증된다. 순전히 '생물학적 효과'는, 초기단계에서는 가시적인 위해가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조건(결함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거나 충격의 지속기간, 자극의 다양성에 따라) 하에서는 극심한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정통 병리학은 복잡다단한 현대적 질병을 완전히 인지할 수 없고, 따라서 과거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분류할 수 없다. 질병이란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 지금까지 적용된 의미의 범위는 분명히 갈수록 더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현재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정되고 완성되어져야만 한다. 전자파과민증, 만성피로증후군, 각종 알레르기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많은 질환, 이를테면 다발적 화학적 무질서(MCD), 진행이 늦은 바이러스 감염, 섬유근육통 등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다. 그러나 주류 과학은 때맞춰 현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제공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학위가 없으면, 그 어떤 헌신적이고 진정성 있는 개인 연구자라도 자신의 연구결과가 출판되는 것을 보기 힘들 것이다. 그의 헌신적인 결과물은 주류 과학계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잊혀질 것이며, 정부기관인 전자파보호위원회조차 동료전문가의 상호심사를 거친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연구 논문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전자파보호위원회의 권고서에서는 이렇게 서술한다. "연구 논문의 품질은 그 논문이 관련 전문가의 상호 검토를 거친 유수 학술지에서 발행됐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주류 과학계에서 일단 한 번 금지당하면, 추후는 불보듯 자명하다: 독립적으로 재현될 수 없는 연구 프로젝트들은 계속 거절당할 것이다. 객관성 및 재현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개인적인 연구자들은, 선의와 진실성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길가로 내던져질 것이다. 나는 주류 과학이 눈가리개를 벗어던지고, 일정한 연구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동일한 수단을 사용해도 똑같이 재현할 수 없는 현상들을 받아들인다면, 미세에너지에 관해 더 나은 인식을 얻어낼 것이라고 믿는다. 생명체의 건강이 기후와 지구물리학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현상이 생체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은 계속해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지난 세기, 이러한 영향은 슈만 주파수, 지자기파, 대기전자기장[5] 같은 전자기적 영향 및 저주파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관련 연구를 비웃으면서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일축한다. 전 세계의 도서관들은 많은 경우 현대

5 대기전자기장(sferics)은 번개로 유도된 무선 신호를 의미하는 말로, 1940년에 최 로 관찰되었으나, 그보다 앞서 독일 물리학자 하인리히 바크하우젠이 1차 세계대전 때 이상한 소음을 들은 바 있다.

물리학과 의학의 기초라고 여겨지는 학설들을 차별하고 거부하는 과학 · 의학 리포트들로 꽉 차있다. 전자스모그 연구에 관한 주류 과학의 입장은 간단명료하고 솔직하다: 공진효과(resonance phenomena)에 의해 일어난 비열(non-thermic)효과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결국 이 말은 마치 선언서와도 같이, 주류 과학의 진실성과 주류 과학이 전자스모그를 '연구'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이번 섹션에서 독자들은 처음으로 내가 개발하고 iHIT®™(inverted Harmonized Informaition Technology)라고 이름 붙인 최첨단 기술을 알게 될 것이다. 특별하고 인정받은 이 기술의 개발은 아직 현재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측정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과 '실질적인 작용'은 사실 미세에너지(이 관점은 주류과학계에 의해 설명된 개념과 큰 차이를 보인다)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자연과학적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극동지역에서는, 이 개념이 널리 알려진 상식이며 일상에 자연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많은 전통적 동양의학 시스템들은 물리적인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생명에너지'라는 개념과 친숙하다. 생체 안의 물리적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것 외에도, 이 생명에너지—중국에서는 기(氣), 인도에서는 프라나(prana)라고 하며, '오드(od)', '오뎀(odem)', '마나(mana)' '오르곤(orgon)'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체내 생화학적 과정을 컨트롤한다. 최근까지도 생명에너지는 믿음의 문제 또는 경험이었으며, 어쨌든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었던 때부터도 이 생명에너지의 존재를 믿었다. 미세에너지라고도 알려진 생명에너지는 '비(非)전자기적인 물리적 장(field) 및 알려지지 않은 성질'이라고 정의됐다. 그 사이에, 전 세계의 수많은 뛰어난

과학자들이 이 과학적 경계에서 발을 돌렸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막스 플랑크 같은 저명한 과학자들은 미세한 비물질적 영역의 존재를 오랫동안 느꼈으며 20여 년 전에서야 그들의 추측은 확인되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들의 존재를 묘사하고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독일 물리학자 부커르트 하임(Burkhard Heim, 1925-2001)이었고, 그의 과학논문인 '통일 양자장 이론'에 서술되어 있다.

그의 논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제는 내가 강력히 원하던 과학적 증거로 꽉 차있었기 때문에 나의 개념과 아이디어의 기 가 되었으며, 내 연구 작업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하임의 논문은 뚜렷한 생명에너지 과정들을 기록하고 만들게 하는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계속 실패해 왔던 것에 대한 이유들을 가르쳐 주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었다. 나는 앞서 말한 측정 체계를 개발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는데, 하임의 연구는 왜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다른 논문들 중 하나인 《물질세계의 구조 및 물질세계의 비물질적 측면(Strukturen der physikalischen Welt und ihrer nichtmateriellen Seite)》을 공통 집 한 발터 드뢰셔(Walter Dröscher, 1996년 출판)에서, 그는 12가지 차원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하였으며, 첫 여섯 차원들은 물질/물리적 성질이고, 남은 여섯 차원들은 비물질적/정보적 성질이다.

하지만, 생물학적 유기체의 정보는 첫 여섯 차원(이 차원을 물성물리영역에 대하여는 배타적인 것)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정보의 영향은 7차원과 8차원에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주류 화학 및 물리학에서 현재 사용되는 기구로 얻은 측정치는 애 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보 측정은 생물학적 시스템의 존재를

고려해서 설계된 측정기구에 의해서만 가능한데(그 기구들은 바로 주류 과학이 "비과학적"[6]이라고 딱지붙인 기구이다), 하임의 논문은 미세에너지/생체 에너지장과 관련된 나의 이론을 상세하고 과학적으로 확증해 주었다; 더군다나, 하임과 드뢰셔가 제시한 모든 수학적 계산은 컴퓨터로 확인이 되었으며, 마지막 소수 자리까지 그들의 값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DESY[Deutsches Elektronen-Synchrotron] 참조). 이 견고한 기 의 도움으로, 나는 의학적, 물리적 연구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무엇이 전자스모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지, 그것의 증상과 잠재적 치료 저항에 대하여 더욱 철저히 인식하게 되었다. 나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기에 완벽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상당한 양의 의학과 물리학 지식이 있어야만 빛을 발할 것이다. 첫 번째로,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인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변화들을 전자공학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과 장치를 만들어야 했다. 다음으로 전달요소 위로 전자공학적으로 보존된 자료를 조율하기 위한 장치를 계발해야 했다. 따라서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율될 수 있는 자료/정보를 허용하는 적절한 전달요소를 찾아야 했다.

최고의 과학적 실습들과 병행하여, 모든 종류의 예방책을 강구해야 했다. iHIT에 관하여 첫 번째 예방책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애 에 증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교정,

---

6 3차원인 사람 X와 2차원인 사람 Y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양자 생물물리학과 기계물리학은 차이가 있다. 후자는 '죽은 물질'의 외형과 조건을 관찰하며, 특별히 그 용도로 설계된 측정기기를 사용한다. 반면 양자 생물물리학은 살아있는 물질을 다루며, 그것이 활발한 상호작용, 상호의존 관계를 다룬다. 그러므로 양자 수준의 변화와 관련된 결과를 얻으려면 측정기구가 생체 시스템과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회복, 지원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중대한 기초 작업과 더불어, 나는 여러 제품에 대한 면밀한 실험을 진행했다. 하지만, 나의 이론과는 상반되게, 일반적 개념이 피험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발견들을 바탕으로, 주파수 영역을 달리하는 새로운 연구를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의 최종 단계 수준으로 제품군을 발전시켰다. 결국, 나의 클리닉에서 이 복잡한 제품들에 대한 이중맹검 연구가 여러 차례 진행됐다. 나의 치료법의 성공들이 독일 내에서 알려진 뒤, iHIT가 정말로 인류에 도움을 주었다는 명백한 제3자의 승인을 받기 위해 독립적 검토위원들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다른 독립적인 그룹을 포함하여 나의 결과를 확인해 주는 일련의 국제적인 연구가 독립적으로 계속 이뤄졌다.

그러한 연구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University study,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September 2004, Australia, ;
- GDV International GmbH by Dr Roberto A. Boschi †, Switzerland by way of Gas-Discharge-Visualisation according to Prof Korotkov;
- Darkfield microscopy according to Enderlein by Prof Dr med.habil Dr Dr Karl J. Probst, MD, Germany;
- Hado-Labor Europe (water crystal research according to Dr Masaru Emoto), Liechtenstein;
- Dr Veronika LÖhnert, MD, Independent Reasearch Center, radiaesthetic evaluations, Vienna, Austria;

- ETAScan, non-invasive evaluations by IFBIO: Institute for Bioenergetics, Vienna, Austria;
- D-F-M (diagnosis for functional medicine), analogous to EEG and EKG evaluations, Germany;
- Victor Vitalpoint Diagnostics, analogous to evaluations using the Prognos device, Germany;
- Kinesiology tests, Naturopathic and Allergy Treatment Center Friedrichsh?he, Germany;
- Dr Tania Rivkina, a natural doctor (qualified in medicine in Russia) and an expert in bioresonance attempted further double blind studies using her IMEDIS diagnostic device but she was unable to establish a control group owing to the exceptionally high background or ambient levels of esmog, Italy.

위의 독립적 테스트들에 의해 얻어진 놀라운 결과들을 확증하는 더 나아간 과학적 연구들은 통제집단들을 찾을 수 없기에 더해질 수 없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추가적인 실험을 하기를 원하면 그들은 단지 이미 충분히 증명된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뿐이다. 지금까지 나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들은 모두 한정적이고 사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진행됐으며, 대략 120만 미국달러를 써야만 했다. 독립적 실험을 위한 자금조성은 이 논문의 작성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결과가 현재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누구도 추가로 비용을 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가 20여 년 전 처음 전자스모그라는 주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주류 과학의 거절, 무시, 조롱과 마주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 중 아무것도 나에게 정말로 새롭지는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대체의학과 그것의 놀라운 효과가 플라시보 효과로 매도되기 때문에,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근거 없는 공격과 주장을 견디면서 나는 충분한 논쟁, 경멸과 적의를 겪었다.

마틴 루터 킹은 1963년 8월 28일, 그의 유명한 연설에서 미래에 대한 그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여러 해 동안 나 역시 비전과 꿈을 키웠다. 나는 아래와 같은 꿈이 있다.

- 모든 단체의 과학자들이 어떠한 산업 등의 간섭 없이 독립적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집단에 가입한다.
- 산업의 우선순위를 사람들의 건강을 첫째로 하고 이익을 둘째로 하도록 재조정한다.
- 과학의 영역에서 연구를 하는 저명한 과학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이름에 연연하지 않는다.
- 학위가 없는 개인 연구자들도 전문가의 상호검증을 거친 학술지에 그들의 연구결과를 실을 기회를 준다.

끝으로,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

"편견보다 원자를 깨는 게 더 쉽다면 이 얼마나 우울한 시대인가?"

사라소타에서, 2007년 2월/3월 (끝)

- 이 글은 'Treatise on Electrosmog'에서 발췌했습니다.
  홈페이지 http://esmog-responders.com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발터 라우프스**(Walter Laufs) | 독일 태생의 물리학자, 연구원, 발명가, 자연치유가인 발터는 1961년 군대를 마친 후 물리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의학기술에서 인턴을 했다. 1967에서 1971년까지 쉰들러

사에서 안전 기술을 중심으로 일을 했다. 1971년에서 1979년까지 텔레푼켄(Telefunken) 사에서 컴퓨터 기반 운송시스템을 연구, 개발했다. 1979년에서 1986년까지 리고니에서 생산 개발팀을 담당했다. 1986년에 커리어를 바꾸면서 자연의학과 건축생물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고, 1988년에 졸업했다. 1988년에서 2004년까지 아내 발트라우드(발리)와 함께 독일 슈바르츠발트 프리드릭스회에 자연치유 알레르기 센터를 운영했다. 또 전자파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04년에서 2009년까지 WillauTronic™, eSmog-Responders™과 같은 전자파 차단 제품을 발명했고, WillauTronic™ 사를 통해 유럽과 호주에서 전자파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일깨웠다. 2009년 9월, 국제 eSmog-Responders™ 사의 공동설립자이자 부회장으로서 최고의 전자파 차단 제품을 세계에 소개하며 세계적으로 전자파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역자 | **안성윤** | 지금여기 번역위원